

## 형용사 조어형태소 *-los*

강명희(경기대)

### 1. 서론

독일어 합성어의 두 번째 구성성분들 가운데 빈번하게 사용되다가 점차 합성성분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고 접미사에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형태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합성성분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직은 접미사로 보기에 어려운 일종의 중간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소들을 학자들은 보통 준접미사 Halbsuffix 혹은 접미사류 Suffixoid와 같은 용어로 지칭한다. 그러나 준접미사에 대한 입장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즉, 준접미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들을 합성성분이나 접미사 어느 한쪽으로 규정함으로써 준접미사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고, 반면에 합성성분이나 접미사 어느 한쪽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합성성분에서 접미사로 향하는 과도기에서 준접미사의 상태를 규정하려는 학자들이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형태소들로는 명사조어에서는 *-gut*, *-werk*, *-wesen*, *-zeug* 등이 있으며, 형용사조어에서는 *-arm*, *-fähig*, *-frei*, *-leer*, *-los*, *-reich*, *-voll*, *-würdig*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현대 독일어에서 자립어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합성어의 두 번째 성분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일정한 계열을 형성한다. Mater(1983)의 ‘역순사전’에 나타난 이들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gut*(109개), *-werk*(373개), *-wesen*(146개), *-zeug*(184개), *-arm*(36개), *-fähig*(121개), *-frei*(111개), *-leer*(20개), *-los*(380개), *-reich*(126개), *-voll*(174개), *-würdig*(58개). 그러나 준접미사를 인정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준접미사에 대한 개념과 기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소들에 대한 입장 역시 다양하다.

이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los*의 경우는 특히 학자들간에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대개는 *-los*를 준접미사로 간주하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식적 조어이론의 대표격인 Fleischer를 비롯하여 이를 접미사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lt;표 1&gt;

	접미사	준접미사
-los	Siebert(1968)	Paul(1920)
	Zepic(1970)	Henzen(1965)
	Fleischer(1975)	Kühnhold u.a.(1978)
	Seidelmann(1979)	Erben(1983)
		Naumann(2000)

위의 표에서와 같이 동일한 하나의 형태소를 두고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우선 앞서 언급한 준접미사의 개념 규정에 대한 다양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los* 자체가 합성성분의 자질로 볼 수 있는 특성과 접미사의 자질로 볼 수 있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합성성분의 자질과 접미사의 자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los* 뿐만 아니라 형용사 조어형태소들 가운데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는 *-arm*, *-frei*, *-leer*, *-reich*, *-voll*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los*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los*가 지니고 있는 합성성분으로서의 자질과 접미사로서의 자질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했을 때 과연 *-los*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형태소인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독일어의 형용사 조어형태소 *-los*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los*에 대한 상이한 입장

### 2.1. 접미사 - Fleischer(1975)

Fleischer는 자립형태소가 파생형태소, 즉 접미사로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sup>1)</sup> 자립형태소와 접미사의 양쪽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모든 구성성분을 준접미사로 간주하였다. 그는 준접미사와 관련하여 명사조어의 경우에는

1) 본 논문 S. 7 <표 2> 참조.

애매한 입장을 나타낸 데 비해<sup>2)</sup> 형용사조어에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arm, -frei, -leer, -reich, -voll 등은 합성어와 파생어의 전이지대 Übergangszone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los의 경우는 접미사로 간주하였다. Fleischer는 *hoffnungslos*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성분인 -los가 자립적인 단어로 존재하고,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그룹화 되어 사용되는 이유로 해서 ‘경계현상’이라 간주한 Henzen(1965, 209)의 주장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외형적 관찰은 잘못임을 지적한다.

‘*hoffnungslos*와 같은 조어들은 두 번째 성분이 아직은 자립어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유사한 그룹의 조어들이 사용되는 의미에 있어서 어쨌든 경계현상으로 간주된다.’ 그와 같은 외형적 관찰은 형식과 의미로 하나의 단위가 이루어지는 언어 기호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sup>3)</sup>

Fleischer는 *das Ei*와 *Auskunft-ei*에서의 *lei*, *der Schafft*와 *Freund-schaft*에서의 */schaftl*, 그리고 대명사 *er*와 *Lehr-er*에서의 */erl* 등은 모두 동음이의적 형태소이며, 이러한 동음이의어들은 어원이 다른 형태소들뿐만 아니라 의미차이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Laubwerk*와 자립명사인 *Werk*에서의 */werk/*는 의미적으로 너무 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

2) Fleischer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 명사적 준접미사로 간주되는 -gut, -werk, -wesen, -zeug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gut, -werk, -wesen, -zeug 가운데 -wesen은 분명히 접미사 성격을 나타내고 동음이의적 자립형태소와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반면에 -gut은 동음이의적 자립형태소와의 차이가 가장 적다. -werk와 -zeug는 그 중간이다. Von den hier behandelten Ableitungselementen hat -wesen sicherlich den Suffixcharakter und die Differenzierung zum homonymen freien Morphem am stärksten ausgeprägt, während das bei -gut am wenigsten der Fall ist. Dazwischen stehen -werk und -zeug.” (Fleischer 1975, S. 178.)

여기에서 Fleischer가 말하는 ‘차이’란 의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적은 차이라든지, 가장 뚜렷한 차이와 가장 적은 차이의 중간이라는 식의 표현은 의미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애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Bildungen wie *hoffnungslos* werden allenfalls als ‘Grenzerscheinung’ betrachtet ‘in dem Sinne, daß ein zweites Glied noch als freies Wort besteht, aber doch schon einigermaßen mechanisch zu gruppenartigen Bildungen verwendet wird’(Henzen S.209) Eine solche formale Betrachtung verkennt den Charakter des sprachlichen Zeichens, das eine Einheit von Form und Bedeutung(Funktion) bildet.(Fleischer 1975, S. 68.)

에 더 이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국 음성형태만으로 동일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Fleischer는 이러한 관점에서 */los/*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즉, */los/*는 자립형태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조어성분과 결합하여 구속 형태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선 자립형태소로서의 */los/*는 명사 *Los*로 나타나거나 부사로 사용되고(z.B. *Der Hund ist los*), 구속형태소로서의 */los/*는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형태소로서 ‘기저내용의 부재’(z.B. *lieblos* ‘ohne Liebe’)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동사의 접두사로 나타난다(z.B. *losfahren*). 따라서 이러한 네 개의 형태소는 단지 동음이의어로서 동일한 외형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공통의 값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Fleischer는 구속형태소 *-los*가 자립형태소의 의미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ohne’라는 일관된 의미만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접미사로 간주하였다.

## 2.2. 준접미사 - Kühnhold/Putzer/Wellmann(1978)

Kühnhold/Putzer/Wellmann은 그들의 저서 『Deutsche Wortbildung』에서 준접미사를 합성어의 두 번째 구성성분 가운데 접미사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들이라 보았다. 그들은 준접미사를 접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준접미사를 통해 접미사는 보완되고 점차 확대된다고 하였다.

접미사의 계열소들은 [...] 접미사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것들을 통해 보완되며, 이들은 이미 풍부하게 형성되어있고, 여전히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sup>4)</sup>

여기에서 ‘접미사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것’이란 준접미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이란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형용사 조어 접미사 *-ig*와 *-haft*는 여러 가지 의미기능 가운데 특히 ‘haben-Funktion’과 같은 소유기능을 담당한다.

4) Die Paradigmen der Suffixe werden ergänzt durch einen reich ausgebildeten und immer noch im Ausbau befindlichen Kreis von suffixartigen Funktionsträgern [...]. (Kühnhold/Putzer/Wellmann 1978, S. 427.)

- 보기) 1. ein **schamhaftes** Mädchen  
       → ein Mädchen, das Scham(gefühl) **hat**  
 2. die **fettige** Butter → Butter, die Fett **hat**

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haben-Funktion’은 *-reich*나 *-voll*과 같은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들에 의해 보완된다는 것이다. 즉, 접미사 *-ig*와 *-haft*가 단순한 소유의 의미만을 나타내는데 비해 준접미사 *-reich*와 *-voll*은 ‘viel’이라는 부가적인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haben-Funktion’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 보기) 1-1. ein **schamvolles** Mädchen  
       → ein Mädchen, das (viel) Scham(gefühl) **hat**  
 2-1. die **fettreiche** Butter → Butter, die viel Fett **hat**

이와 아울러서 Kühnhold/Putzer/Wellmann은 *-los*의 경우 *-frei*와 함께 ‘haben-Funktion’에 대립되는 기능인 ‘nicht-haben-Funktion’을 지니는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로 간주하였다.

- 보기) 1-2. ein **schamloses** Mädchen  
       → ein Mädchen, das **keine** Scham **hat**  
 2-2. die **fettfreie** Butter → Butter, die **kein** Fett **hat**

저자들은 *-los*가 자립적인 형태소 *los*와 의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를 접미사로 간주한 Fleischer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와 같이 *-los*가 ‘nicht’라는 의미적 부가자질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한 소유기능을 나타내는 접미사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용사 조어 형태소 *-los*는 아직은 준접미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3. 상이한 입장에 대한 배경

Fleischer와 Kühnhold/Putzer/Wellmann은 합성어의 두 번째 구성성분이 빈번하게 나타나다가 점차적으로 접미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준접미사로 간

주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준접미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Fleischer는 기본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sup>5)</sup>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그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합성어의 두 번째 구성성분이 자립적으로 쓰이는 동일한 외형의 형태소가 존재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이 파생어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합성어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외형적 관찰에 대한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다른 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준접미사로 취급되는 형태소들을 자립형태소와 동음이의어 현상으로 간주하여 준접미사의 범주를 축소시켰다. 그는 다만 합성성분이나 접미사 어느 한쪽으로의 구분이 도저히 어려운 형태소들만을 합성성분과 접미사 사이의 전이지대에 있는 형태소들로 보고,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준접미사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에 비해 Kühnhold/Putzer/Wellmann은 기본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은 어렵다는 입장에 있다.

일정한 합성성분들이 평소에 접미사라 인정되는 기능의 표현 형식으로 다소간 작용하기 때문에 파생어와 합성어 사이의 뚜렷한 경계설정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sup>6)</sup>

여기에서 저자들이 준접미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합성어와 파생어의 뚜렷한 경계설정은 애초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영역에 준접미사라는 범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학자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준접미사의 범주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5) Fleischer가 의미하는 파생어에는 접미파생어만이 해당된다. 그는 접두사를 지닌 조어유형을 접두어(Prefixwort)라 하여 합성어와 파생어와는 별개인 제 3의 조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6) Da bestimmte Kompositionsglieder mehr oder weniger schon als Ausdrucksformen von Funktionen wirken, die sonst eher von Suffixen wahrgenommen werden, scheint eine scharfe Grenzziehung zwischen Dervation und Komposition kaum möglich. (Kühnhold/Putzer/Wellmann 1978, S. 427.)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차이점은 Fleischer의 주요 관심사가 합성성분과 접미사를 구분하는 것에 있는데 비해, Kühnhold/Putzer/Wellmann의 주요 관심사는 합성성분과 준접미사를 구분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Kühnhold/Putzer/Wellmann은 준접미사와 접미사의 경계설정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준접미사를 접미사와 함께 접사의 범주에 두고, 준접미사와 접미사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Fleischer는 합성성분이 접미사가 되기 위한 네 개의 조건을 제시한데 비해 Kühnhold/Putzer/Wellmann은 합성성분이 준접미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2>

Fleischer	Kühnhold/Putzer/Wellmann
1. 강한 계열형성	1. 계열형성
2. 의미의 보편화 및 탈구체화	2. 접미사와 유사한 기능
3. 의미관계에 있어서의 추이	3. 접미사들과의 상보적 상호작용과 때에 따라 차이없는 경합
4. 자립적인 사용의 제한	4. 음성상 동일하고 합성어의 기본어로 나타나는 단순어의 내용가치와의 의미적인 거리
	5. 결합가능성의 변화 및 제한. 즉, 준 접미사는 접미사와 마찬가지로 기저어의 첫 번째 성분없이는 거의 사용될 수 없다.

아울러서 이들이 제시하는 준접미사의 종류는 Fleischer에 비해 Kühnhold/ Putzer/Wellmann이 월등히 많다.

&lt;표 3&gt;

	Fleischer	Kühnhold/Putzer/Wellmann
<b>adjektivische Halbsuffixe</b>	<i>-ähnlich, -arm, -artig, -fähig, -förmig, -frei, -gemäß, -gerecht, -haltig, -leer, -reich, -voll, -wert, -würdig</i>	<i>-aktiv, -arm, -artig, -fähig, -durstig, -feindlich, -fest, -förmig, -frei, -fremd, -freudig, -freundlich, -froh, -geil, -gerecht, -haltig, -hungrig, -leer, -los, -lüstern, -müde, -pflichtig, -reich, -schwanger, -schwer, -sellig, -sicher, -stark, -technisch, -trächtig, -verdächtig, -voll, -wert, -widrig, -würdig</i>
<b>substantivische Halbsuffixe</b>	<i>-gut, -werk, -wesen, -zeug</i>	<i>-gut, -kram, -kreis, -leute, -material, -reich, -volk, -welt, -werk, -wesen, -zeug</i>

Fleischer는 *-los*를 자신이 제시한 접미사의 기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준접미사의 범주에서 제외시켰고, 그에 비해 Kühnhold/Putzer/Wellmann은 그들이 제시한 준접미사의 기준에 *-los*가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 이를 준접미사로 간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애초부터 준접미사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그에 해당하는 형태소들의 종류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중에서도 특히 *-los*가 양쪽의 입장에서 다르게 분류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los*가 지닌 자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los*의 양면적 자질

#### 3.1. 접미사로 볼 수 없는 *-los*의 자질

##### 3.1.1. 자립형태소와의 의미적 연관성

Fleischer는 구속형태소 *-los*가 자립형태소의 의미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ohne’라는 일관된 의미만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접미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구속형태소 *-los*의 의미가 자립형태소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자립형태소와 구속형태소로 나타나는 *//los/*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los* = <Adj.>

1. nicht mehr fest; gelöst, abgetrennt; von jmdm., einer Sache befreit sein
2. irgendetwas [Ungewöhnliches] geschieht; eine besondere Lage ist eingetreten

<Adv.>

1. (als Aufforderung) schnell!; ab!
2. (in Verb. mit der Präp. ‘von’) weg

*-los* = *-los* drückt in Bildungen mit Substantiven aus, daß etw. nicht vorhanden ist, daß die beschriebene Person oder Sache etw. nicht hat<sup>7)</sup>

자립형태소 *los*는 보통 ‘분리된 abgetrennt, 벗어난 befreit’ 등의 의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비해 구속형태소 *-los*는 한 가지 일관된 의미로 기저어가 지칭하는 것이 ‘없음 Nichtvorhandensein’을 나타낸다.

다음은 구속형태소 *-los*의 예이다.

7) Duden-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2003, S. 1029f.

보기) Nordkorea muß ebenso **bedingungslos** zur Abrüstung  
gezwungen werden wie Irak.  
→ Nordkorea muß ebenso **ohne Bedingung** zur  
Abrüstung gezwungen werden wie Irak.

구속형태소 *-los*는 위와 같이 특히 명사기저어와 결합하는 ‘BS + *-los*’인 경우 ‘ohne BS’의 의미를 지닌다. *-los*의 기저어는 아주 소수의 경우<sup>8)</sup>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사이므로 Fleischer의 주장대로 *-los*는 거의 ‘ohne’의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자립형태소로 쓰이는 *los*의 경우 형용사와 부사 외에도 형태적으로 동일한 명사 *Los*도 언급될 수 있지만 ‘제비뽑기 Lotterie’나 ‘운명 Schicksal’과 같은 여러 개의 의미변이형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ohne’와의 의미 관계는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명사 *Los*는 형용사 조어 형태소 *-los*와 명백히 동음이의어 관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자립형태소 *los*의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기) 1. Aber nun *los*.  
2. Hier ist etwas *los*.  
3. Er machte die Kette *los*.  
4. Peter ist seine Komplexe *los*.

위의 예문 가운데 1번의 경우 *los*는 어떤 행동의 출발을 나타내는 부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2번의 경우는 관용어적인 어법으로서 ‘Hier ist etwas passiert’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두 경우에는 *los*의 독립적인 의미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속형태소 *-los*의 의미인 ‘없음’은 확인될 수 없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los*는 자립형태소로 볼 수 있다. 3번과 4번의 경우는 문체가 좀 다르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los*는 ‘결핍 Fehlen’을 지칭한다. 즉, 3번에

8) Kühnhold 등의 학자들은 *-los*의 기저어로서 명사 이외에 나타나는 것은 동사뿐이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reglos* (sie stand *reglos* → sie stand, ohne sich zu regen), *wehrlos* (wehrioser Zivilist → Z., der sich nicht wehren kann), *haltlos* (*haltlose* Behauptung → B., die sich nicht halten läßt)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밖에 *selbstlos*와 *bewußtlos*는 어휘화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서는 *losmachen*의 분리 접두사로서 ‘Nichtvorhandensein einer Bindung’을, 4번에서는 ‘Nichtvorhandensein von Komplexen’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둘 다 ‘없음’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구속형태소 *-los* 와의 의미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sup>9)</sup> 특히 4번과 같이 자립형태소 *los*가 *sein*과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구속형태소 *-los*의 의미인 ‘ohne’와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기) 1. Ich bin eine Sorge los.  
       → Ich habe keine Sorge (mehr).  
       → Ich bin **ohne** Sorge.  
 2. Ich bin Geld los.  
       → Ich habe kein Geld (mehr).  
       → Ich bin **ohne** Geld.

따라서 구속형태소 *-los*의 의미가 세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와 유사한 의미의 자립형태소가 존재하므로 아직은 구속 형태소 *-los*를 완전한 접미사로 보기 어렵다.

### 3.1.2. 의미적 부가자질

형용사 조어 접미사는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저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 보기) die heidnischen Sitten → die Heiden **haben** Sitten  
 das väterlichen Haus → der Vater **hat** ein Haus<sup>10)</sup>  
 dreifenstriges Zimmer → Zimmer, das drei Fenster **hat**  
 schrullenhafter Mann → Mann, der Schrullen **hat**<sup>11)</sup>

9) Vögeding 1981, S. 96f.

10) Kühnhold/Putzer/Wellmann 1978, S. 260.

11) ebd., S. 295.

그에 비해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들은 단순한 소유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정도와 관계한다. 예를 들어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 *-reich*와 *-voll*은 기저어가 지칭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arm*은 기저어가 지칭하는 것을 미세하게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frei*, *-leer*와 *-los*는 기저어가 지칭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lt;표 4&gt;

형용사 준접미사	의미 자질
<i>-reich</i>	'viel ... haben'
<i>-voll</i>	
<i>-arm</i>	'wenig ... haben'
<i>-frei</i>	'kein ... haben'
<i>-leer</i>	
<i>-los</i>	

즉, 이들 준접미사들은 'haben'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에 비해 'viel/ wenig/ kein'과 같은 의미적 부가자질을 나타냄으로써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보기) kinderreiche Familie → Familie, die viele Kinder hat<sup>12)</sup>  
 anmutsvolles Mädchen → Mädchen, das viel Anmut hat<sup>13)</sup>  
 gefühlsarmer Mensch → Mensch, der nur wenig Gefühle hat<sup>14)</sup>  
 alkoholfreies Getränke → Getränke, das keinen Alkohol enthält<sup>15)</sup>  
 inhaltsleere Redensarten → Redensarten, die keinen Inhalt haben<sup>16)</sup>  
 ärmelloses Kleid → Kleid, das keine Ärmel hat<sup>17)</sup>

따라서 *-los* 역시 위와 같이 'kein'이라는 부가자질을 지님으로써 접미사보다는 준접미사의 의미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ebd., S. 429.

13) ebd., S. 168.

14) ebd., S. 120.

15) ebd., S. 136.

16) ebd., S. 148.

17) ebd., S. 149.

3.1.3. 결합소

결합소는 합성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생어에 있어서는 특정한 파생 접미사 앞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등장한다. 이것은 결합소가 본래 합성어에서 첫째 구성성분인 명사의 굴절 접미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더 이상 문법적 기능을 갖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결합소들에서 굴절기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소는 합성어에서도 대부분 첫째 구성성분이 명사나 동사어간인 경우에 나타나며,<sup>18)</sup> 특히 Duden-Grammatik에 의하면 전체 합성어의 약 1/3 가량에서 결합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9)</sup> 그에 비해 파생어의 경우에는 접미사 *-haft*와 *-mäßig* 앞에서만 결합소 *-(e)n-*과 *-s-*가 나타나며, 접미사 *-ig* 앞에 드물게 결합소 *-(e)r-*가 부가되는 정도이다. 이렇듯 파생어에서 결합소가 나타나는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을 만큼 적기 때문에, 보통 결합소는 파생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합성어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합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다음은 Mater의 사전에 나타난 몇 개의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들을 대상으로 결합소가 나타나는 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 5>

형용사 준접미사	Frq	결합소(-)	A	결합소(+)	A
<i>-arm</i>	36	30	83.3%	6	16.7%
<i>-frei</i>	111	74	66.7%	37	33.3%
<i>-leer</i>	20	13	65%	7	35%
<i>-los</i>	380	256	67.4%	124	32.6%
<i>-reich</i>	126	81	64.3%	45	35.7%
<i>-voll</i>	174	102	58.6%	72	41.4%
총 계	847	556	65.6%	291	34.4%

(Frq= Frequenz, A= Anteil)

18) 합성어에서 첫 번째 구성성분이 동사인 경우에는 전체의 약 88%에서 결합소가 나타나지 않고, 형용사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결합소가 나타나지 않는다(Duden-Grammatik 1998, S. 457.).

19) ebd., S. 456.

위와 같은 준접미사를 동반한 형용사 조어들의 경우에 결합소는 각각의 준접미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합성어의 경우에서처럼 대략 1/3 가량 나타나며, 이는 대개 Duden-Grammatik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들은 결합소의 기준으로 볼 때 아직은 합성성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los*의 결과 역시 합성성분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결합소가 나타나는 비율이 32.6%로 전체의 결과와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결합소라는 형태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los*는 아직은 완전한 접미사로 보기에 적합치 않다.

*-los*를 동반한 형용사 조어에서 나타나는 결합소는 *-(e)n-*, *-er-*, *-(e)s-* 등이다.

보기) seele-n-los, lücke-n-los/ kind-er-los, blätt-er-los/  
anstand-s-los, vorwurf-s-los, geschlecht-s-los etc.

### 3.1.4. 경합 관계

접미사들은 대개 동일한 기저어를 통해 의미적으로 상호간에 경합을 한다. 이들은 경합하는 형태소들의 계열소에 나타남으로 해서 접미사 체계 내에 위치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 *-ig* / *-haft* : ek(e)lig  $\approx$  ekelhaft  
*-ig* / *-lich* : schaurig  $\approx$  schauerlich  
*-haft* / *-lich* : schmerzhaft  $\approx$  schmerzlich  
*-haft* / *-sam* : grauenhaft  $\approx$  grausam  
*-lich* / *-bar* : schändlich  $\approx$  schandbar

그러나 *-los*의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접미사가 없고, 오히려 준접미사와 경합 관계에 있다. 특히 *-los*는 *-frei*, *-leer*와 함께 동의어 관계에서 경합을 하며, *-reich*, *-voll*과는 반의어 관계에 있다.

1) 동의어 관계

-los, -leer, -frei는 동의어 관계이다. 이들은 모두 기저어를 통해 지칭된 것의 ‘Nichtvorhandensein’을 의미함으로써 ‘결여 privativ’ 조어에 해당된다.

보기) ereignisloser Tag → Tag ohne Ereignisse  
 schilffreies Wasser → Wasser ohne Schilf  
 luftleerer Raum → Raum ohne Luft

그러나 -los에 비해 -frei와 -leer는 더 강하게 세분된다. 즉, -frei는 결핍이 장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조어를 형성하고, -leer는 결핍이 단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조어를 형성한다.

보기) fehlerfreies Diktat → Diktat ohne Fehler  
 liebesleere Ehe → Ehe ohne Liebe

그에 비해 -los는 가치 중립적인 조어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frei, -leer 모두와 동의어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보기) -los/ -frei : fettlos ≈ fettfrei, salzlos ≈ salzfrei  
 -los/ -leer : ausdruckslos ≈ ausdrucksleer,  
 inhaltslos ≈ inhaltsleer

2) 반의어 관계

-los는 -reich, -voll과 반의어 관계에 있다. 동시에 -reich와 -voll은 동의어 관계에 있게 된다. -reich와 -voll은 둘 다 기저어를 통해 지칭된 것의 ‘vieles Vorhandensein’을 의미함으로써 ‘소유 possessiv’ 조어에 해당된다. 이로써 결여성 조어인 -los와 반의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기) absichtslose Äußerung ↔ absichtsvolle Äußerung  
 wolkenloser Himmel ↔ wolkenreicher Himmel

본래 자립형태소 *voll*의 반대는 *leer*이다. 그 때문에 *-voll*의 반의어는 *-leer*로 형성되어야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단점으로서의 결핍을 의미하는 *-leer*의 기능을 *-los*가 보완할 수 있고, *-frei*의 의미 기능까지 보완할 수 있는 *-los*의 다양한 사용가능성은 *-voll*의 반의어를 형성할 과제까지 *-leer*로부터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위와 같이 *-los*와 동의어 관계와 반의어 관계에 있는 것은 모두 형용사 조어 준접미사들이다. 이로써 *-los*는 준접미사와의 경합 관계만을 보임으로 해서 접미사보다는 준접미사의 체계 내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3.2. 접미사로 발전 가능한 *-los*의 자질

#### 3.2.1. 가치 중립성

‘haben-Funktion’을 가진 준접미사들은 *-reich*나 *-voll*과 같은 ‘소유’나 *-frei*, *-leer*, *-los*와 같은 ‘결여’를 의미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소유의 정도나 결여의 정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조어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특히 결여성 준접미사 *-frei*, *-leer*, *-los*는 그 기저어의 결여가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가치 평가어로 작용한다. 즉, 이들은 서로 동의어 관계에 있지만, *-los*에 비해 *-frei*와 *-leer*는 더 세분되어진다. 즉, *-frei*는 ‘없음’이 바람직한 경우를 나타낸다.

보기) astfreies Holz, mietfreie Wohnung, atomwaffenfreie Zone

이밖에도 *fieber-*, *steuer-*, *nikotin-*, *porto-*, *sorgen-*, *zoll-* 등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들로서 이들과 *-frei*와의 결합은 자연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leer*는 ‘없음’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보기) ausdrucksleeres Gesicht, liebeleeres Leben

그러나 *-los*는 *-frei*, *-leer*와 달리 대부분 ‘없음’의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나타낸다. 즉, *-los*는 기저어의 ‘없음’이 바람직한 경우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나타낸다.

보기) 1. Fehlen als Mangel

: charakter-, erfolg-, mut-, rücksichts-, treu-, willen-,  
hemmungs-, zügel-, ziellos etc.

2. Fehlen als Vorzug

: fehler-, gefahr-, risiko-, tadel-, vorwurfslos etc.

이와 같이 *-los*는 *-frei*나 *-leer*에 비해 의미적 분포의 제한을 덜 받음으로써 절여성 준접미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높은 빈도수와 가치 중립적인 사용으로 인해 *-los*는 다른 동의어 관계에 있는 준접미사들보다 앞서서 접미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3.2.2. 단일화된 의미기능

*-los*는 의미구조가 상대적으로 통일적이다. 즉, *-los*는 다른 준접미사들에 비해 한가지 의미로 통하기에 접미사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Fleischer는 모든 ‘X-*los*’<sup>20)</sup>의 경우 모두 ‘ohne X’로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los*를 접미사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동의어 관계에 있는 *-frei*의 경우 그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 개로 나타나는 데 비해 *-los*는 한가지로 나타난다.<sup>21)</sup>

20) X는 기저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임의의 기호임.

21) Duden-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2003.

&lt;표 6&gt;

<p><i>-frei</i> drückt au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aß die beschriebene Sache nicht an etw. gebunden, nicht von etw. abhängig ist</li> <li>2. daß etw. nicht benötigt wird, nicht erforderlich ist</li> <li>3. daß etw. nicht erhoben wird, nicht geschuldet wird</li> <li>4. daß etw. nicht gemacht zu werden braucht</li> <li>5. daß etw. nicht stattfindet, daß man etw. nicht hat</li> <li>6. daß etw. nicht vorhanden ist</li> </ol>	<p><i>-los</i> drückt aus, daß etw. nicht vorhanden ist, daß die beschriebene Person oder Sache etw. nicht hat</p>
--	--

이러한 *-los*의 단일화된 의미기능은 더 많은 유사조어들을 생산해 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형용사의 두 번째 구성성분으로 나타나는 빈도수가 자립어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증가하면서 Fleischer가 제시한 접사의 네 번째 기준과 같이 자립적인 사용이 제한되면서 점차로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3.2.3. 음운구조

형용사 조어 접미사들의 음운구조는 일정한 형태적 특징을 나타낸다. 즉, 대개의 형용사 조어 접미사들은 단음절이며,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V(Vokal) + K(Konsonant)'의 구조가 가장 빈번하고,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K + V + K'의 구조가 가장 빈번하다. 그에 비해 드물긴 하지만 'V + K + K'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고, 특히 'V + V + K'와 같은 음운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하나 뿐이다.

V + K : *-al/-ell, -ar/-är, -ig, -iv, -os*

K + V + K : *-bar, -lich, -sam*

V + K + K : *-icht, -ern, -ant/-ent, -esk*

V + V + K : *-oid*

그런데 준접미사들의 음운구조 역시 위의 결과에 상응한다. 즉, *-arm*과 같이 'V + K + K'의 음운구조는 접미사의 경우처럼 그 빈도수가 많지 않으며, 준접미사들을 인정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고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leer*, *-voll*, *-reich*는 역시 접미사에서도 가장 빈번한 음운구조인 'K + V + K'의 구조에 해당한다. 이때 *-los*의 경우는 형용사 조어 접미사의 음운구조에서 가장 빈번한 'K + V + K'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의어 관계에 있는 *-frei*에 비해 접미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frei*의 음운구조인 'K + K + V'는 접미사에서는 드문 구조이다.

K + V + K : *-leer*, *-los*, *-voll*, *-reich*  
 K + K + V : *-frei*  
 V + K + K : *-arm*

즉, 동의어 관계에 있는 결여성 형태소 *-frei*, *-leer*, *-los* 중에서 *-leer*와 *-los*는 접미사의 음운구조로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조에 해당하는 준접미사군에 포함되어있고, *-leer*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los*는 음운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접미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형태소로 볼 수 있다.

#### 4. 결론

현대 독일어에서 형용사 조어 형태소 *-los*의 상태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los*와 동일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arm*, *-frei*, *-leer*, *-reich*, *-voll* 등의 형용사 조어 형태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준접미사로 분류되는 것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los*의 경우는 학자들에 따라 준접미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접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특히 *-los*가 다른 형용사 준접미사들에 비해 접미사로 발전 가능한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los*는 기저어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칭하는 조어 형태소로서 'ohne'라는 통일된 의미기능을 가지고, 또한 중립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조어로서 의미적인 분포의 제약을 덜 받는다. 그밖에 음운구조 역시 접미

사의 음운구조로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K+V+K’의 구조이다. 이와 같은 접미사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형용사 조어 형태소로서의 쓰임이 자립어로서의 쓰임보다 수적으로 우세할 때, 점차로 *-los*는 접미사로 향하는 길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los*의 자질들이 *-los*를 접미사로 평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los*는 아직까지 자립어와의 의미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결합소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합성성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의미적인 부가자질과 준접미사와의 경합 관계를 보이는 점에 있어서도 아직은 접미사로 간주하기에 석연치 않다. 따라서 비록 *-los*가 접미사로 발전 가능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접미사와 유사한 기능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합성성분으로 간주할 만한 자질 역시 지니고 있어서 이를 준접미사로 간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도 본래 자립어로서 합성성분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다가 현대 독일어에서는 완전히 구속형태소로서 접미사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bar*, *-haft*, *-lich*, *-sam* 등의 형용사 접미사들의 경우는 *-los*를 비롯한 다른 형용사 준접미사들보다 앞선 과정을 거친 형태소들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형태소들이 접미사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결국 *-los*가 접미사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 자체가 아직은 *-los*가 접미사로 고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los* 이외에도 다른 준접미사들의 상태에 대한 연구 역시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희자/이소영 (2001): 독일어 조어론의 이해, 태학사.  
 진성복 (1987): “voll”에 의한 복합어의 성격과 구조,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진성복 (1999): 근대고지독어 *-bar* 형용사의 구조와 의미, 독일문학 70.  
 진성복 (2000): 독일어 어휘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조 건 (1999): 현대도이치어 파생명사의 조어의미성분, 독일문학 70.  
 Braune, Wilhelm/Paul, Hermann/Sievers, Eduard (1962): Zur Abgrenzung von Zusammensetzung und Ableitung, In: *Beiträger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 Sprache und Literatur*, Halle(Salle); Max Niemeyer Verlag.
- Duden-Grammatik (1998): Bearbeitet von G. Drosdowski u.a., 6. neubearb. Aufl., Mannheim; Dudenverlag.
- Duden-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2003): Bearbeitet von Dudenredaktion, 5. neubearb. Aufl., Mannheim/Leipzig/Wien/Zürich; Dudenverlag.
- Eichinger, Ludwig M (1992): Funktionale Wortbildungslehre -Suffixe, Halb- suffixe und Komposita beim Adjektiv-, In: *DAAD*, 235-247.
- Eichinger, Ludwig M (2000): *Deutsche Wortbildung*,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Erben, Johannes (2000): *Einführung in die deutsche Wortbildungslehre*, 4. neubearb., Aufl., Tübingen; Erich Schmidt Verlag.
- Fleischer, Wolfgang (1972): Tendenzen der deutschen Wortbildung, In: *DaF* 9, 132-141.
- Fleischer, Wolfgang (1975):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Fleischer, Wolfgang (1977): Typen funktionaler Differenzierung in der Wortbildung der deutschen Sprache der Gegenwart, In: *Beiträger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131-145.
- Fleischer, W/Barz, I (1992):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2. Aufl., Tübingen; Max Niemeyer.
- Gersbach, Bernhard (1984): *Wortbildung in gesprochener Sprache I, II*,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Hansen, Sabine/Hartmann, Peter (1991): *Zur Abgrenzung von Komposition und Derivation*, Trier; WVT Verlag.
- Holst, Friedrich (1974): *Adjektive auf "-gerecht" im heutigen Deutsch*, Dissertation, Uni. Hamburg.
- Jaeschke, Maria (1984): "Bewußt" auf dem Wege zum Halbsuffix?, In: *Sprachpflege* 3, 33-35.
- Kann, Hans-Joachim (1972): Anmerkungen zu modernen Adjektivbildungen, In: *Muttersprache* 82, 105-109.
- Kramer, Günter (1962): Zur Abgrenzung von Zusammensetzung und Ableitung, In: *Beiträger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406-438.
- Kühnhold, I/Putzer, O/Wellmann, H(1975)/(1978): *Deutsche Wortbildung - Sprache Gegenwart* 32/43, Düsseldorf: Pädagogischer Verlag.
- Mater, Erich (1983): *Rückläufige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 sprache*, Leipzig; Finken Verlag.

- Müller, Wolfgang (1982): Wortbildung und Lexikographie, In: *Germanistische Linguistik* 80, 153-180.
- Naumann, Bernd (2000): *Einführung in die Wortbildungslehre des Deutschen*, 3. neubearb., Aufl.,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Olsen, Susan (1986): "Argument - Linking" und unproduktive Reihen bei deutschen Adjektivkomposita, In: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Göttingen, 5-24.
- Olsen, Susan (1988): Flickzeug vs. abgasarm : Eine Studie zur Analogie in der Wortbildung, In : *Festschrift for Frank Banta*, 75-97.
- Poethe, Hannelore (1988): Produktive Modelle der adjektivischen Wortbildung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In : *DaF* 25, 342-348.
- Schmidt, Günter Dietrich (1987): Das Affixoid, In: *Deutsche Lehnwortbildung*, 53-101.
- Seibicke, Wilfred (1963): Wörter auf "-mäßig", In: *Muttersprache* 73, 33-47.
- Stepanowa, M. D./Fleischer, W. (1985): *Grundzüge der deutschen Wortbildung*,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 Urbaniak, Gertrud (1983): *Adjektive auf -voll*, Heidelberg; Carl Winter Uni. Verlag.
- Vater, Heinz (1971): Tendenzen der Wortbildung im heutigen Deutsch, In: *Bulletin Phonographique XII*, 29-38.
- Vater, Heinz (1972): Zur Abgrenzung von Ableitung und Komposition, In: *Festschrift für Wilhelm Giese*, 240-249.
- Vögeding, Joachim (1981): *Das Halbsuffix "-frei"*,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Zusammenfassung

### Adjektivisches Wortbildungsmorphem *-los*

Kang, Myoung Heui(Kyonggi Univ.)

Im gewärtigen Deutschen gibt es zwei verschiedene Auffassungen über das adjektivische Wortbildungsmorphem *-los*. Während *-los* einerseits als Halbsuffix betrachtet wird, will man es andererseits als Suffix betrachten.

Die Gründe, die *-los* als Halbsuffix gelten lassen, sind die folgenden :

1. Es besteht eine semantische Verwandtschaft zwischen *-los* und dem freien Morphem *los*.
2. Anders als Suffix hat es ein zusätzliches semantisches Merkmal.
3. Die Bildungen mit *-los* haben die Fugenelemente.
4. Es konkurriert mit adjektivischen Halbsuffixen.

Die Gründe, die *-los* als Suffix gelten lassen, sind die folgenden:

1. Im Unterschied zu *-frei* und *-leer* dient es zur wertungsneutralen Feststellung des Sachverhalts 'Nichtvorhandensein'.
2. Es besitzt eine einheitliche semantische Funktion. (BS+*-los* = ohne BS)
3. Es gehört zur Lautstruktur 'KVK'. Diese entspricht der Lautstruktur der adjektiven Suffixe *-bar*, *-lich*, *-sam* usw.

Diese verschiedenen Merkmale von *-los* lassen das Morphem noch nicht als Suffix gelten.

[검색어] 형용사 조어형태소 *-los*, 접미사, 준접미사  
Adjektivisches Wortbildungsmorphem *-los*, Suffix, Halbsuffix

강명희

463-7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셋별마을 우방 APT 301동 1001호

gunie@chol.com